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15년을 맞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1월 3일 (토) 제 1516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신년 칼럼

● 신년 초대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2015년 새해를 맞으며 애독자 여러분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인생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인생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길을 맡기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2015년 이 한 해도 승리하는 해가 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첫째,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지하여 선을 행하라”(시37:3)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약속과 은혜에 대한 신앙을 말한다. 인생의 육적인 생활, 현실적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다. 우리 인생 주위에 우리를 해하려 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배신하는 자들이 있을 지라도 그들에 의해 좌우되지 말고 신행(信行)을 일치시키라는 말이다. 즉, 생활하는 신앙인, 행동하는 신앙인, 생명있는 알곡 신자가 되라는 말이다.

시편 37편 3절에 계속 보면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라는 말씀이 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된 보상을 체험하게 되며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기뻐진 식물로써 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진리로 양식을 삼게 되리라, 견고히 누리리라는 뜻도 된다.

시편 125편 1절에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

고 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생길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

둘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시37:4)라는 말씀은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소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연하장에 “새해에는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써서 보낸다. 그러나 그 만 가지 소원을 성취시키는 길은 오직 하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보다 더 전진한 신앙의 적극성과 자발성을 의미한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좋아한다, 제일로 여긴다, 높인다,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마음의 태도를 말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오직 여호와만을 기뻐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회개한 후 빌립보서 3장 7-9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했다. 그는 자기의 민족도 혈통도 가문도, 학벌도, 선행도, 가산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셋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편 5절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라고 했다. ‘길’의 원어 ‘페렉’은 신자의 모든 염려되는 일들과 알 수 없는 전정(前程)을 가리킨다. 그리고 ‘맡기라’는 의미는 첫째로 모든 문제를 다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무슨 문제든지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주님 앞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자의 바른 태도다.

둘째로 ‘맡기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해결해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이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지도록 맡기는 것이다. 셋째로 ‘맡기라’는 것은 ‘굴러버린다’는 뜻이 있다. 큰 짐, 무거운 짐

을 지고 인생길을 가지만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 짐을 산꼭대기에서 밀어내 버리면 그가 맡아준다는 것이다. 내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내 운명이 곧 하나님의 것이 되므로 여기에는 승리와 평화, 사랑, 영광만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맡기라’는 의미는 맡겨 지운다. 얽히운다는 뜻이 있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더 나아가 내 인생 전체를 그에게 맡기면 그가 맡아준다는 것이다. 내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내 운명이 곧 하나님의 것이 되므로 여기에는 승리와 평화, 사랑, 영광만이 있는 것이다.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시37:6)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뻐하고 인생길을 맡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만민에게 내가 형통함을 보이겠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어 태양이 중천에서 눈부시게 빛남같이 높이, 넓게, 밝히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그 전의 의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인생 길을 맡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주님의 은혜

노선희 전도사

넘어진 짚사랑을 감사 안아 세우시고
제물 되어 버려짐으로 외로이 걸어가시며
뿔거벗고 두려워 떠는 죽을 나의 몸
주님은 사랑의 은혜 자락 들려주십니다

끝내 헤아려 드리지 못한 당신의 속내를
핏물 얼룩진 눈가에 환한 미소로 돌아보시니
겉옷을 찢으며 세상 속에 목말라 시들은 나의 마음에
주님은 사랑의 화해 자락을 들려주십니다

모든 두 손 위 한숨만 더하는 영원한 기다리심을
모질게 내쳐서 낮은 자의 심금을 보이시니
그 앞 가신 들밭 앞에 아직도 망설이는 나의 영혼에
주님은 사랑의 인내 자락을 들려주십니다

나에게 입혀주셨던 자락 자락 자락...

이제
나를 빚어 만든 이의 향내 나는 향약 세마포 가슴에 받들고
내미신 아버지의 든든한 손에 어린신부 되어 이끌리니
새롭게 베푸신 면회장은 크게 열어 주시며
구장을 가르신 권능의 피 자락을 들려주십니다



2015 불확실한 미래, 하나님만 믿고 산다! 2면



신년메시지 4면 5면



신년특집 6면 7면 8면 9면 10면



11면
아브라함 카이페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 원장)

은혜의 33년
33 Years of Grace

Happy New Year!

은혜이슬 새벽부흥회

“세상의 빛과 소금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1/5(월) 5:30am
강사: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1/6(화) 5:30am
강사: 신승훈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1/7(수) 5:30am
강사: 김인식 목사
(LA웨스트힐즈교회 담임)



1/8(목) 5:30am
강사: 권현빈 목사
(엘비인온누리교회 담임)



1/9(금) 5:30am
강사: 전우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1/10(토) 6:00am
강사: 김춘근 장로
(JAMA Founder&Chairman)



일시: 2015. 1.5(월)~9(금)/5:30am, 10(토)/6:00a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본당)

주일예배 |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pm
은혜세계기도센터 | 365일 24시간 OPEN
예매 | 5:30am, 8pm | 금요일정당회 8:00pm
은혜기도원 TEL: 951/277-1188 | 11965 Indian Truck Trail, CA 92833



시론

“이제는 속도보다 내실입니다”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올해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해의 세월호 사건을 잊을 수 없다. 수장된 것은 꽃다운 우리들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조리, 불합리, 이기적 보신주의로 말미암은 한국 사회와 외형적 급성장에 눈이 어두워 온갖 세속적이고 부조리한 기복주의, 신비주의, 자유주의에 몰들고 병든 한국교회였다. 이제는 빠른 속도보다는 천천히 내실이라는 깨달음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가치와 복음의 본질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조금 느려도 궁극적인 삶의 실존으로 연결해 나가야 한다. 조금 느리게 걸으면 느끼고 감사하고 더 많이 나누고 사랑하고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 복음적 가치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작가 피에르 상소(Pierre Sansot)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Du Bon Usage de la Lenteur)라는 책이 출간되어 한 때 논픽션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상소는 이 책을 통해 속도 경쟁 시대에서 쫓기듯 허둥지둥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는 ‘느림의 철학’을 소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여유 없이 ‘빨리빨리’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온다. 혼자만의 시간을 내서 발걸음 닿는 대로, 풍경이 부르는 대로 걸으며 ‘나’를 맡겨 보고, 다른 사람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도 보고, 한가로움을 즐기며 반복되는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권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고 도태나 일탈도 아니다. 빠른 속도로 박자를 맞추지 못하는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 접근하는 삶의 방식의 문제이다. 삶의 길을 가는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도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며, 조금 천천히 둘러가더라도 인생의 근본을 바로 보자는 의지로서의 느림을 의미하고 있다. 바쁘다고 건너뛰지 않는 의지, 시간이 뒤죽박죽 되도록 허용치 않는 의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주변을 살피면서 가는 느낌이다. 아울러 그는 ‘여유로움’이라는 내적 통찰을 강조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살면서 놓쳤던 삶의 의미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이다. 빠른 속도보다 천천히 내실이 자신을 더욱 경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급한 성격을 가진 민족 중의 하나다. 한때 ‘은근과 끈기’를 민족적 자부심으로 여기더니 어느새 ‘빨리빨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보편적 선으로 자리잡고 있다.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서 느림은 ‘탈락’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일어나, 더 많이 움직여,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경쟁의식을 강제하기도 했다. 6.25동란이후 잿더미와 같은 우리 조국을 일으키기 위해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방식이었다. 그 결과 ‘빨리빨리’는 오늘의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한국인 특유의 근면성과 결합된 신속성은 놀라운 제품 생산력으로 나타나 세계의 인정을 받았고, 자동차, 가전, 건설,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고, 특히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IT산업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게 했다.

반면에 ‘빨리빨리 문화’가 치른 대가는 어떠한가? 사실, 불법 시공의 결과 대표적으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등 숱한 안전사고로 ‘사고 공화국’의 오명을 쓰더니 마침내 내 지식들을 차가운 바다에 수장하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불러왔다.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고속 성장, 초대형교회, 선교대국으로 그 위용을 자랑하며 달려온 한국 교회가 최근 연이은 대형교회들의 대형사고로 말미암은 적폐현상이 기독교 안티들에게 얼마나 좋은 먹이감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제라도 속도보다 천천히 내실이다. 빨리 먹는 것보다 소화가 중요하고, 사람을 빨리 많이 아는 것보다 천천히 만남, 진실한 만남이 더 중요하다. 빨리 열리는 페이지보다 천천히 음미하며 볼 게 많은 페이지가 낫다. 스마트 폰이 책의 향기를 뺏어가고, SNS가 깊은 사색을 어렵게 하며, 빠른 검색 기능이 생각과 문화의 깊이를 차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 포장된 상식보다는 알찬 내실을 선택해야 한다. 이 시대의 섹스피어는 속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서 나온다. 창의력은 속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묵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새해에는 빨리 성장하는 것보다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익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성경을 빨리 통독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주님을 아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깊이 알수록 심자가 복음의 진한 향기 오래 머물기 때문이다. 힘써 여호와를 깊이 알아! (호6:3)

2015 불확실한 미래, 하나님만 믿고 산다!

국제 언론들, 국제사회와 미국 정치, 종교에 신중한 전망

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는 2015년 세계 경제와 금융, 비즈니스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전망한다. 2015년 미국 중심의 경제 성장과 연준의 금리인상, 유로존의 더딘 회복, 중국의 성장률에 대한 우려 등으로 세계 경제가 갈림길에 설 것이며, 모든 분야의 기업들이 쉽지 않은 사면초가의 해를 보낼 것이라 예측한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와 민족주의 강화로 인한 분열이 대두될 것이며, 에볼라 바이러스와 동성애 문제로 세계적 정치 판도가 양극화를 펼 것이라 전망한다.

미국사회는 먼저 오바마 대통령 재집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레이덤 현상'이 가속되며, 이민 개혁안 실행에 따른 파장과 함께 민주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공화당 대권 후보 주자들의 부상이 예상된다.

여기에 중동에서의 '이슬람국가(IS) 영역 확장'에 따른 알카에다의 주도권 과열 경쟁과 이에 따른 후폭풍, 서민 이미지로 지구촌 카톨릭 교인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청 개혁과 주류교단에서의 동성결혼 지지와 성직자 안수 문제 등등이 2015년 종교 뉴스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1. 레이 덩(Lame duck)없는 오바마 대통령?

지난 11월 중간선거는 사실 그의 레이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지만 오히려 오바마 대

과 클린턴 대통령은 이 기간에 거의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두 명의 대통령의 레이덤 기간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오히려 대통령이 이 남은 2년 간 더 많은 성과를 냈다. 부시 대

이 이미 수위를 넘어섰다. 시리아에서부터 이라크 북부까지 상당수의 도시들을 장악한 IS의 위력은 알카에다를 훌쩍 넘어선 양상이다. 시리아와 레바논, 요르단 이집

반발로 볼 수 있다. 이슬람국가(IS)의 세력 확장을 두고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늘고 있다. IS의 세력과 규모가 확대될수록 이스라엘의 '안정망 확보'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과격할 것까지 지구 폭격이 오히려 이슬람국가(IS)의 탄생에 힘을 실어주는 꼴로 변질되고 있음이다.

레이덤 맞은 오바마 대통령, 반전 가져올 수도 IS 세력 확장 갈수록 확대...지구촌 안전 위협 프란치스코교황의 인기·동성결혼 이슈 여전

령은 이민 정책이나 기후변화 그리고 쿠바와의 관계 등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레이덤이라는 개념의 시작은 18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증권거래소의 중개인들은 거의 파산 직전인 브로커들을 일컫는 말로 레이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인들은 이 단어를 정치적 상황에 적용했다. 미국이 건국된 지 140년이 지난 시점에 선거에서 진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은 선거 이후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 5개월가량의 시간이 있었고 이를 레이 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51년 이후 반대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남은 2년을 이들과 동거해야 하는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나머지 네 명은 아이젠하워, 레이건, 클린턴,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 다섯 명의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2년 동안 상하원 모두가 반대당이 다수당을 장악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기간 동안 이른 입법 성과는 미미했다. 레이건

통령의 마지막 2년은 그의 8년 임기 중 최고의 시간이었다. AIG에 대한 긴급 구제를 하면서 미국이 대공황으로 빠지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부시 대통령보다 더 적극적이다.

만약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지도, 미국 정치의 과제다. 대통령이 시행한 행정조치(executive action)는 무효로 하기 어려운 새로운 계약의무나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트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과격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급부상으로 고민이 더욱 깊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팔레스타인 지지자를 무차별 공격하면서 무고한 시민과 어린이들의 희생을 불러왔던 이스라엘의 폭력성(Brutality)과 이슬람국가의 폭력성(Extremism)은 과연 어떤 잣대로 이분화할 수 있는가. 알카에다와도 결별을 선언한 자칭 이슬람국가(IS)의 세력 확대에 상당수의 무장단체들이 일조를 하는 데는 이스라엘의 '오만한 가자지구 폭격'에 대한

'내 적의 적은 친구다(The enemy of my enemy is my friend)'란 기치로 세력을 넓혀가는 이슬람국가(IS)의 위세가 어디까지 확장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3. 프란치스코 교황의 거침없는 행보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종교의 지도자를 넘어서 세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다. 그는 즉위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영향력은 내로라하는 강대국의 지도자를 넘어서고 있다. 역사상 수백 명의 교황이 있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세계인들의 환호를 받는 교황은 일찍이 없었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office addresses in L.A. and N.Y., and contact inform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ing a background image of a campus and text about degree programs, study op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신년특집

신·년·설·교

매일의 행복을 위하여

양춘길 목사(필그림교회, 뉴저지)



2015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난 해보다 더 행복한 삶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행복의 조건과 잣대는 서로 다르겠지만 보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소망찬 새해와 행복한 나날을 기원하며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 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스스로에게 많이 속아보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거듭하였던 후회 덕분일까... 행복은 먼 훗날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또한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찰스 헷돈 스펀전이라는 위대한 시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행복에 대한 공감을 갖게 됩니다.

큰 일을 이룬 후에 찾아오는 행복감도 있지만, 매일의 행복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겠지요. 행복한 나날을 위해서는 하루를 마치며 후회하게 될 일들을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날들, 지나온 인생에 대한 후회가 클수록 행복이 자리할 공간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먼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 것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뒤로 미루어놓은 일들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제공하며, 예기치 않은 상황들과 맞물려 우리 안에 후회의 공간을 확장시키며 행복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분문을 통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때로 무엇을 선택하며,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는 그의 저서 “행복론”에서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또한 나의 선한 목자와 사랑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가까이, 내가 그 하나님 곁에 있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며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인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예배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과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요4:23).

둘째, 성경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삶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노라면 가까이서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셋째, 기도생활입니다.

기도는 영적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가까이 계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대에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는 느끼고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요일4:12).

2015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행복한 나날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기쁨의 생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한 해를 살기 위해 오늘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매일 갖는 큐티(Quiet Time), 찬양과 말씀,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가 건네 준 친절과 사랑의 말이 삶의 기쁨과 행복을 더해 주고, 조각된 웃음이 아닌 내적 즐거움과 감사에서 우리나라는 자연스러운 웃음과 노래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증대시킵니다. 새해에는 매일 행복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매일을 시작하며, 생각난 선명, 사랑의 실천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실천하는 성실,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건네는 친절한 말과 사랑의 미소, 담담한 두지 않고 지금 소리 내어 부르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행복한 나날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015 불확실한 미래, 하나님만 믿고 산다!

(2면에서 계속)
왜 세계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주목하는 것일까?
그는 겸손하고 청빈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권력자와 부자가 아닌 가진 것 없고 소외받는 사람들 편에 서고 있다. 교황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권위적 교황이 아니라 인간미 넘치고 친근한 교황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프란치스코 효과’라는

제목의 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톨릭이라는 기업의 회생에 성공한 CEO로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교황은 일년 만에 가톨릭 브랜드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공비결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핵심역량에 집중한 것을 꼽았다. 또 이를 위해 브랜드를 재단장하고 조직을 재구성하면서 가톨릭 회생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동성결혼이나 진화론에도 우호적

인 접근을 해도 “교황이기에 용서가 된다”는 정서가 카톨릭 내부에서 이미 형성됐다. 결국 바티칸 개혁을 위해 유럽중심주의에서 탈피하며, 부패와 비리의 온상 바티칸 은행에 손을 대고 연관을 갖고 있는 마피아들을 파문했고, 드디어 가톨릭 최고 스캔들, 아동성추행도 적극 대응하면서, 바티칸 개혁을 통한 전세계 카톨릭 신자들을 “개혁”으로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 행보가 과연 어디까지일까?

4. 동성결혼과의 끝까지 않는 전쟁?
미국장로교(PCUSA)는 제221차 미국장

로교 총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두 사람’의 결합으로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법안을 승인했다. 남녀가 아닌 동성애자끼리의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동성결혼이 합법적인 지역에서 목사들이 동성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도록 총회가 승인하고,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역이라도 동성커플 주례를 금지했던 기존의 법은 무효가 된다.

총회는 결혼에 대한 헌법의 정의를 바꾸는 헌법 개정안(규제서 W-4.9001)을 산하 172개 노회로 보낼 예정인데 헌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1년 안에 과반수가 넘는 노회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미국장로교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동성결혼 찬성

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2010년에는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교단의 방침이 이처럼 변화하면서 428개 교회가 교단을 떠났고 교인은 37%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성애 허용과 관련한 주류 교단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미국장로교뿐이 아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교단인 연합감리교(UMC)도 동성결혼 승인을 반대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최근 교단 분리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또 동성애 목회자와 동성결혼을 일찌감치 인정할 미국 성공회에서도 여전히 찬반논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다.

[알림] 정기휴간에 따라 1월 10일자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의 평안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blessings be with you throughout the coming year

발행인 장영춘 목사 외 미주크리스천신문 직원 일동
The Korean Christian Press

신년특집

신년메시지 2015년 새해를 맞으며...

양처럼 순결하고 겸손한 한 해 되기를
세계한인기독교연합회장 박재호 목사(브라질새소망교회)



이제 올미년 2015년이 밝아왔습니다. 새해에도 온누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빛이 두루 비쳐 음지가 양지가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고 갈등의 역사가 화해의 역사로 전환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이슬람 국가(IS) 등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위협으로 지구촌이 큰 불안에 빠져든 한해였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형태의 테러도 지구상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지구촌의 정치,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이 지배적인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기독교 박해사태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해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교회와 성경이 불타는 기독교 탄압의 현장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오히려 종교 간의 화해와 상생의 기운이 지구촌에 솟아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새해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대한민국의 민족사절, 문화사절로 곳곳에서 한국인의 긍지를 높이 들어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령으로 살아가는 한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둡고 미개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헌신하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에게 금년 한해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적 반목과 사회적 갈등은 해외에 있는 코리아 디아스포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진보와 보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갑과 을의 대립과 반목을 전례 들으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조국을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우리가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위대해졌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어...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의 정치사회 현실에 좌우될 필요 없이 오늘의 우리 조국이 있기까지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구촌의 지도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시대가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는데 핵이 아니라 평화로, 대립이 아니라 화해로, 고립이 아니라 공존의 시대를 열어 북한도 당당한 세계 국가의 일원이 되어 갈수 있도록 기도하며 마침내 그 북녘 땅에도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오르는 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올미년은 양(羊)의 해입니다. 양은 순결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순결과 겸손은 기독교인의 기본 덕입니다. 새해엔 양처럼 순결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의 소망 갖자
월드미션대총장/미주복음방송사장 송정명 목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2014년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살아가고 희망찬 2015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의 경계선을 그어 주셨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 한주, 한달, 한해라는 시간의 경계선을 정해 놓으신 것은 여간 지혜로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해"라는 경계선을 그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새로운 계획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지난날의 아픔이나 상처는 빨리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에 넘친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다짐이 필요 할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가 운영할 사업체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게 될 교회위에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아시아 선지자께서도 그렇게 교훈해주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43:18-19).

2015년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반면에 남북이 분단된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매를 맞아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회상 되는 해가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바사나라의 고레

스 왕 때(BC538) 실현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지난 70여 년 간의 분단의 아픔을 종식시키고 남북이 북을 안에서 통일의 길을 찾는 구체적인 기도운동이 시작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계도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로 부터 많은 비난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새해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교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도록 환골탈퇴해서 박수도 받고 신바람 나는 일들을 주도해나가 보겠다는 계획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 심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체위에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相生(상생)하는 高揚(고양)된 새해
남가주그리스도의교회원 회장 엄규서 목사(월서크리스천교회)



어느 날 몸 자체들이 비상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코가 일어나 불만이 가득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에 우리 중에 혼자 놓고먹는 못된 백수가 한 놈 있습니다. 바로 저하고 가장 가까이 사는 입이라는 놈인데 그 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다하고 먹고 싶은 음식은 혼자 다 먹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말에 발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 입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주인이 얼마나 무겁습니

까? 그 무거운 몸으로 몸장 만들겠다고 밤낮으로 뛰어 다니 발이 아파 죽겠습니. 그래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 입이 혼자 먹고 또 먹고 많이 먹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손도 말했습니다. "게다가 입은 건방집니다. 먹으려면 자기 혼자 수고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개나 닭을 보시면 그것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잘 먹는데 입은 날 보고 이것 갖다 달라 저저 갖다 달라 심부름을 시키고 자기만 먹습니다. 정말 매스꺼워 견딜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세요. 앞으로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절대 보지도 말고 냄새도 맡지도 말고 입에 가져다주지도 마시."

그 제안이 통과되어 즉시 입을 굼기지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손과 발은 후들 후들 떨렸습니다. 눈은 앞이 가물가물 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코는 사방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로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용히 있던 입이 말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다 죽습

니다. 제가 저만 위해 먹습니까? 제가 먹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입술도 깨물고 혀도 깨물입니다. 그러나 섬섬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며 삼시디!" 그 말에 다른 자체들이 수긍을 하고 예전처럼 자기의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서 건강한 자체로 회복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이민사회의 특징이 그렇듯이 저마다 특색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도 그럴 것도 태어난 환경, 배경, 재능, 성품, 교육 수준, 취미, 생활수준, 종교 등이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끈임 없이 발생하는 불협화음으로 교계와 사회가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서로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거나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신의 목소리를 낮출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해는 밝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서로 연대, 협력, 상생하여 더욱 건강한 가정과 속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고양된 희망찬 새 신년이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매일 말씀묵상, 영성일기 쓰는 2015년
UMC한인총회 총회장 이성현 목사(드림교회)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가정에서 그리고 하시는 사업과 일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책에 수녀님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다섯 가지 결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해본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매일 하는 모든 일을 아무 생각 없이 건성으로 하지 않고 반드시 사랑의 마음이 들 여간 지향을 지니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향을 지니고 사는 삶이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 빛나는 별을 한 개씩 심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기도의 제

목을 정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향을 두고 하루를 지내다 보면 어려운 일에도 짜증을 덜 내게 되며 기도가 일상의 삶과 좀더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겠다는 평범한 결심을 더욱 충실하게 실천하리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누군가에게 미루고 싶은 게 으름에 빠질 적엔 "내가 아니면 누가?"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다는 것입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을 자꾸만 나중으로 미루고 싶을 적에는 "지금 아니면 언제?" 하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자신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늘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감동을 지니고 겸허하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이란 자기 안에서 빠져 나와 주변을 보고 경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에 오히려 소홀하기 쉬운 내 주변의 사람들, 사물들을 좀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경탄하며 고마운 표현을 자주 하자는 것입니다.

넷째는 어린이와 같은 단순성으로 모든 일에 기쁨을 발견하려 애쓰고, 이렇게 찾아 얻은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멋진 나무들, 꽃향

기, 새소리, 사람들의 웃음과 격려의 말에서도 기쁨을 발견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상황들,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시련 속에서도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어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항상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고운 마음을 쓰려고 노력하는 결심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극단적인 말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골라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혜인 수녀님은 고운 말씨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평소 좋아하는 말 중에 부정적이거나 고치고 싶은 말을 적고, 오른쪽엔 좀더 긍정적이고 남에게 기쁨을 주게 될 아름다운 말을 적어놓고 기회가 올 때마다 연습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페이지에는 내가 실수해서 남에게 상처를 준 말, 남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말을 적어 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에 저는 한 가지 결심을 더하고 싶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영성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생활일기는 자기 자신이 초점이라면 영성일기는 주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매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초청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 신학교 제 25회 졸업 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다음과 같이 있사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졸업하시는 분들을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분교 학위수여식은 본교에서 함께 거행합니다.

학위 취득자

- 목회학석사(M. Div) 김경민, 김용원, 김은숙, 김정민, 김재상, 박수진, 서옥석, 소유영, 임은아
- 기독교 교육학(M.R.E) 신주희
- 선교학석사(M. Miss) 김명자, 김필현, 이순옥, 황혜옥
- 여교역학(Diploma) 김혜경, 정영숙
- 신학사(B. Th) 고엘림, 조혜진

일 시: 주후 2014년 6월 2일(월) 오후 8시
장 소: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연락 처: (718)463-7163 (718)886-4040 (646)717-2733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장영춘 박사 이사장이용걸 박사

신년 특집

신년메시지 2015년 새해를 맞으며...

작은 것부터... 한 발자국만 내딛자

뉴욕한인목사회 회장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욕은 근대사에서 세계의 희망과 등대였습니...

경우는 딱국 한 그릇 먹으며 대망의 신년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은 문화의 핵인 구주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후발 오...

유럽과 아시아는 둘의 대륙이 아니고 하나의 대륙 하나의 상권으로 그 주...

의 가용 평지 나라에서 쟁쟁 달리는 고속도로 건설의 꿈은...

사람은 실용적으로 발전하여왔습니다. 공중 다이빙 같은 꿈에 내 운명을...

6.25 적화무력남침은 우방국 미국과 UN에 혼술이 난 이후 뉴욕과 UN의...

유럽과 아시아는 둘의 대륙이 아니고 하나의 대륙 하나의 상권으로 그 주...

도권을 한국이 잡고야 말겠다는 이니셔티브의 꿈은 꿈 사이즈가 너무 커...

세계의 희망 등대 뉴욕은 다시 한국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면 성취할...

새해에는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어디 해보자, 할 수 있어, 한 발자국만...

연합함으로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오렌지카운티교회회장 김기동 목사(충만교회)



2014년도 주의 은혜가운데서 지나가고 새로운 2015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새해는 더욱 기도로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기...

도로 연합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여자들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둘째는 새해는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상처가 많은 이 시...

드러나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셋째는 새해는 성령으로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

2015년 새해에 기도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성령으로 연합하고 하...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한 해 되길

오래번쿠버교회회장 오광석 목사(포틀랜드한인연합교회)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성도 여러분께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해에는 더 좋아지는 일들로 가득 차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안 좋아진다는 전...

어떤 한 청년이 신앙심이 깊은 어른에게 물기를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

원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는 마음보다는 내가 먼저 남을 위...

2015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교민사회에서, 그리고...

올 한 해도 신앙인으로 이민의 삶을 성실하게 개척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불의에 맞서는 사명 감당

뉴욕교회회장 이재덕 목사(뉴욕사랑교회)



새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는 선배 목회자와 초기 동포 이민역사와 전통을 지난 41년 동안의 역사가 말해주듯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역해야 합니다. 젊은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뉴욕교회는 매년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보라 전에...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뉴...

교회의 41회기는 "성령이 이끄시는 화합과 소통의 교향"(엡2:16-17)을 금...

함께 기도해주시시오. 새해에 이루어질 교향의 모든 사역에 동참해 주십...

새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On Campus Courses 2015 봄학기 수업 안내

- Feb 16-20(2월 16 -20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eb 23-27 (2월 23-27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DI8310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21세기 선교



기독교 교육을 통한 선교와 복음의 진보

변미화, 정운진 선교사 St. Paul 유초중고등학교 교장 (주인도한국선교부)

기독교 교육(학교운영)을 통한 전도와 제자 양육! 이것만이 가장 폭넓은 지름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그것도 어릴 적부터(3-5세 이전) 복음을 듣게 하여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잘 실천하며, 찬송을 부르고 복음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나아가서 전도까지 하게 하는 이 일, 이 선교사역!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힌두와 모슬렘 부모들이 단지 자기 자녀들의 재물로 귀엽게 듣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말씀과 찬송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니, 이 크나큰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리나벨리에 도나브로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곳 사역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왔다. 그 지역은 막 태어난 여자아이들을 힌두템플에 가서 신에게 바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여자아이들을 몰래 돈을 줌 주고 사와서 양육(교육)시키는 곳이다. 예 이미카마이클 아일랜드 여선교사가 시작한 것이고 그 여선교사가 무덤도 그곳에 있다. 수 백명의 여자아이들이 있고 그 여자들이 자라서 인도 각 주에서 일을 하고 결혼을 하여 가정도 이루고 있으며,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 돈독한 신앙심을 배우며 성장하였는지 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꼭 한번 방문하기를 권하는 마음이다. 내가 그곳을 방문하였을 때 75

뎀음같이 이 땅이 복음으로 덮여지는 그 날이 오리라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기다린다. 이 일을 위하여 베리카이에 10만평의 땅을 구입하도록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인도학교들을 복음으로 살릴 크리스천 교사 양성 사범대학이 세워지는 날에 더욱 복음의 진보가 빠르게 되리라! 1978년도에 남편 정운진 선교사와 숙식을 같이 하면서 10년, 20년 선교를 하였던 서구 선교사분들을 강사로 모셔와(Winter, Pierson, Peters, Ron 등) 선교훈련을 받았을 때(동서선교대학원)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

학생들과 교사들 집이 가정교회 모임 장소로 이제는 더 확산하여 모든 교사들이 금요일 오후 4시경부터 한 시간 동안, 자기 집으로 친 놓으신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인도학교들을 복음으로 살릴 크리스천 교사 양성 사범대학이 세워지는 날에 더욱 복음의 진보가 빠르게 되리라! 1978년도에 남편 정운진 선교사와 숙식을 같이 하면서 10년, 20년 선교를 하였던 서구 선교사분들을 강사로 모셔와(Winter, Pierson, Peters, Ron 등) 선교훈련을 받았을 때(동서선교대학원)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

바울학교는 신학교와 교회와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보호막과 방파제가 잘 되어주고 있다. 우리 신 학생들이 바로 바울학교 학생들을 위한 전도자들이요, 또 주일학교 교사이므로 주말이 되면 바울학생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온 동네 집을 방문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Sunday School로 연결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것이 또한 복음의 큰 진보요 역사인 것이다. 해마다 12월 한달 내내 캐롤 찬송을 하기 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한다. 각 주 언어로 찬송배우기, 달력준비, 각 언어로 전도지 준비 등을 하여서 첫날이 되며 6시30분부터 8시30분 이상까지 열심히 온 동

인도를 복음으로 살리는 첫 길 이 교사들이 먼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의 바탕위에 교사 자격증을 갖고 인도 전지역 학교로 파송된다면, 교사들이 바로 전도사로 또 언어가 다른 주로 가면 곧 선교사로 가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독교 사범대학 인가를 받기 위하여 정부에 신청하였다. 진심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신실한 믿음의 교사들이 인도 11억 인구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어릴수록 기회가 더 많고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하여 더욱 빨리 사범대학 인가를 받도록 앞도려 기도드리고 있다.

학교운영을 통한 기독교교육으로 전도와 제자양육이 선교의 폭넓은 지름길 어릴 적부터 말씀, 기도, 찬송 가르쳐 교사로 양육되면 인도전역이 복음화

10년가량 공부한 학생들이 졸업 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모슬렘, 힌두들인 부모님들에게 미리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결단하여, 많은 학생들이 세례를 받는 그 광경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며 오로지 기독교학교 교육에서 만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열매이며 놀라운 기적적, 역사적 현실이라고 말하고 싶다. 기독교 학교에서 배운 졸업생들을 조사한 결과 거의 80% 이상이 신자가 된다는 통계를 읽고, 나는 우리 바울유초중고등학교를 통하여서는 90-100%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마7:7-8, 눅18:1-2)하고 기도드리면서 99%는 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이러한 결심과 열매들을 위하여 성경 말씀암송에 전력을 다하도록 교사들과 학생들을 격려했다. 신구약전체 말씀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선정하여 학년별로 반드시 외워야만 되는 분량들을 정하여 주어 철저히 암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조(catechism)도 암송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타밀나두주에 있는 트

세가 된 책임자가 하는 말이 "나는 태어난지 3일 만에 힌두사원에서 이곳으로 데려와진 사람"이라고 말하였고, 모두들 일주일 만에 또는 하루 만에 라고 말할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가슴 밀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격과 감동의 마음이 있었다. 그중 kanah여인(61세)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 BA, B.Ed, M.Ed, 석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사로 일하고 있다. 그 카나 교사를 보면서 나는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는지 모른다. '기독교학교 교육이 이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말하고 싶고 또 강조하고 싶다. 영국을 살린 것이 주일학교 교육이라면, 또 무디 목사님 때도 주일학교를 살려서 믿음의 견고한 나라가 되었고, 인도도 이 기독교 학교교육을 인하여 이 어두움의 나라에 빛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학교 교육은 일주일내에 주일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최대의 선교가 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 구성구석에 들어갈 때는 물이 바다를

다-그것이 바로 제3세계, 특히 모슬렘, 힌두지역에 기독교학교 교육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를 주시려는-그 비전이 이제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뤄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 존귀를 올려 드리는 바이다. 학생들 가정에서 전도의 징검돌(stopping stone)로 바울학교 초기에는 학생들의 손을 잡고 그 집들을 방문하고 그 이웃들을 방문하여 안심된 마음에서 전도할 수 있었고 또 복음을 듣고 받을 수 있는 귀한 계기(contact point)와 관계성이 되었다. 학생들을 각반에서 뽑아 그 집에 가서 교사들이 금요일마다 구역예배를 돌아가면서 드렸고 기도모임과 성경공부 등을 하였다. 주변 이웃도 초청하여서 함께 기도를 드렸다. 나는 여러 곳의 기도모임 장소를 둘러보면서(3:30-4:30p.m. 사이) 느끼고 배운 점은 역시 신실한 교사들은 착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요즘은 학생들이 스스로 친구들을 모아서 기도모임을 하며 말씀을 읽고 있다.

으로 데리고 가서 기도모임을 하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많은 성장과 성숙과 복음의 진보가 가정교회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감사한다. 100만 가정교회가 인도 땅에 세워지도록 간구 드린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계신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핍박) 지역에서 보호막으로, 방파제로 모기도 못 죽이는 힌두인들이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며, 교회당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 상황에서 AECS(아시아 신학대학 및 대학원)와 IEC(교회기 위험에 처하였을 때에도 바울학교는 보호막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다. 방파제 역할을 하여서 파도가 쳐도 염려 없듯이, 바울학교 1500명 학생들, 2000명 학부모, 3000명 이상 형제자매들, 수 천명의 친척들, 수 천명의 이웃들, 수많은 학교 주변사람들 등 2만여 명이 바울학교를 잘 알고 귀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는 것이다.

네, 온 마을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달려와 전도지를 주고 찬송, 말씀 증거, 기도를 하면서 전도한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이때 거두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 팀들도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벌써 15년 이상이 되어 가는데 삼정마다, 가정마다, 우리 바울학교 사진과 말씀이 적혀있는 것을 일년 내내 걸고 있고(한 장짜리 달력, 올해는 6장짜리), 모두들 주변이 우리 학교가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귀한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인도는 행사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function)이 많은(힌두절기 공휴일, 모슬렘 공휴일) 나라이다. 그래서 한달 내내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분위기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 모든 동네에서 기다리는 행사가 되어졌다. 주님! 더욱 빨리 속히 이들의 구세주가 되시옵소서. -아멘-

결론적인 한 마디! 어릴 적부터 말씀, 기도, 암송, 찬송으로 그들의 피가 되어 그 속마음에 가득히 귀하게 흘러넘치도록 하는 일! 이것이 중요하며 선교사역 핵심인 것이다. 그들이 교사가 될 때는 인도가 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야생동물이 집짐승이 되어가는 예이며 힌두사원에 바쳐지는 아이들을 출생 그 다음날 혹은 일주일, 3개월 만에 살그머니 구하여 온 여아들을 키워서 지금은 훌륭한 크리스천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되어 있고, 되어가고 있으니 이러한 크리스천 일꾼들이 인도 27개주에 계속 퍼져 나가면, 그때에 분명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인도를 덮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계획과 노력과 희망이 우리 바울학교 운영과 교육이다. 우리 학생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구석구석 가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메일: aeccsiec@hotmail.net

공동주최: 라디오코리아, 한국일보, 남가주한인목사회
주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el : 323-735-3000 Fax : 323-735-3111
Email: koreanchurch981@gmail.com
Website: scalckc.org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절취선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은 우리 생활의 기본인 쌀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절취선

- * 사랑의쌀은 개인신청을 기본으로 신청한 1인에 1포, 한 가정에 최대 2포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한가정 2포일경우 2명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 단체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 신청방법은 1) 신문 및전단지 2) 웹사이트 3)이메일을 쓰실수 있습니다
- 1) 신문 및 전단지: 측면의 신청서에 정보를 기입하시고 남가주교회 사무실에 방문하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81 S, Western Ave #401 LA, Ca 90005 "사랑의쌀 담당자 앞"
- 2) 웹사이트: http://scalckc.org의 '사랑의쌀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3) 이메일: koreanchurch981@gmail.com로 신청서파일 (.doc)을 보냅니다 (신청서는 웹사이트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6차 2014 사랑의 쌀 신청서

이름(name)	
이메일(email)	
연락처(phone)	
주소(Address)	

신년특집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1)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모든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쉬지 않고 흘러가는 물과 같다. 때로는 강한 소리를 내며 때로는 미약한 소리와 함께 역사는 계속 흐른다. 창조 이래 단 한 순간도 정지되었던 적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의 힘이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보 이상의 것이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과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제대로 알기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흐르는 역사의 흐름의 관점에서 이 사건이 지닌 독특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역사는 재현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마치 흘러온 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과 같다. 특정한 시간과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똑같이 일어날 확률은 없다. 단지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뿐이다. 로마와 같이 절대적인 힘을 지닌 강대국이 출현하여 제한된 시간 동안 세계를 지배하지만 영원하지 않다. 새로운 강대국이 출현하면서 세계는 새로운 힘의 구도를 취하게 된다.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어도 이전의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강조점을 보이게 된다. 역사가 처해있는 시대의 환경이 언제나 다르기 때문이다.

역사는 이 과거가 되어버린 사건을 재구성하는 수고를 포함한다. 한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눈은 다양하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닌 가치와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이해되고 해석된다. 사건 자체보다 훨씬 많이 부풀려질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 자신의 눈과 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정보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사건을 재구성하는 역사가의 수고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주어진 정보의 객관성 여부이다.

역사는 흐른다. 그래서 답이 있을 수가 없다. 단지 지난 세월 동안 기록된 문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이다. 우리는 역사적 문서들을 통해 배우고 이해하고 교훈

을 얻는다. 이 문서는 나름대로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 기록된 역사로 남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종합되어진 것이다. 물론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역사는 강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다는 말이 있다. 세속 역사가 지닌 특징 중에 하나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가? 역사는 해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교과서를 포함하여 활자화된 모든 역사적 기록들이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정한 역사적 작

중교적 결단이나 염원을 담은 창작품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보이기 위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활자로 기록되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비교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다.

성경이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안에 과거

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흐르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생활, 가나안 땅 정복과 사사시대, 나아가서 왕정시대와 포로생활, 그리고 나라의 회복과 암흑기를 포함한 모든 역사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견한 것이었다.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게 하셨다.

신약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흘렀다. 복음서는 그리스도

사의 흐름을 막으려는 방해꾼이 있다는 것이다. 뜻을 쌓아 강의 흐름을 막으려는 고약한 사람들의 노력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가서 왕정시대와 포로생활, 그리고 나라의 회복과 암흑기를 포함한 모든 역사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예견한 것이었다.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중단 없이 흘렀다. 지난 2000년 동안 한 순간도 정지하지 않고 오늘까지 흐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성경은 주후 100년까지의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되었지만, 향

스도가 중심된 복음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확장되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보통 교회역사를 크게 다섯으로 구분한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시대, 근대교회, 그리고 현대교회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 줄기로 흐르는 역사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구분한 것이다. 각 시대마다 교회가 처한 상황이 매우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목적을 향해 교회 역사의 물은 흐르고 있다. 예수의 재림이다.

초대교회(1세기-6세기 말)는 핍박과 혼동에서 출발하여 교회가 견고해진 모습을 발견한다. 중세교회(6세기 말, 16세기 초)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혼동 속에서도 유유히 흘렀다. 종교개혁시대(16세기 초-17세기 중)는 성경적으로 교회로의 개혁된 모습을 추구하며 새롭게 흘렀다. 근대교회(17세기 중-19세기 말)는 자아중심적인 신앙의 패러다임을 거부하면서 힘차게 흘러왔다. 현대교회(19세기 말 이후)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 시키는 도전 속에서도 꾸준히 흘러왔다.

흐르는 교회 역사를 통해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 역사의 내부를 보면 성경말씀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역사 보여 성경은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기록돼 있고 그 중심엔 그리스도 있어

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면, 먼저 그 교훈의 근거가 되는 사건의 사실 여부가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역사의 황포로부터 진정한 교훈을 박탈할 수 있다는 거룩한 부담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역사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역사에 대한 분명한 눈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경도 흐르는 역사에 대해 말한다

성경은 역사에 대한 글이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궁금해 하는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동시대에 성경은 창조된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창조 이후의 역사의 흐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니다.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 일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역사적인 성격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품으셨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자신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어오셨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는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시간과 오신 후의 시간이다.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것이다.

모든 구약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흘렀다. 마치 산에 있는 실개천이 강을 향하여 흐르듯,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작고 커다란 역사적인 일들은 인류를 위해 대속

께서 약속대로 오시어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자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며, 왜 그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오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완성되고 적용되는 현장을 접하게 된다.

구원 역사 안에는 생명이 흐르고 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생명이다. 사도행전과 서신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파위를 접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접하면서,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속에서 반복되는 일관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복음의 진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물이 있다. 거의 예외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

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었다. 성경의 역사는 1세기 이후 초대교회의 역사로 이어진 것이다.

교회 역사는 흐르는 물이다

교회의 역사는 흐르는 물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물이다. 교회의 역사가 일반 역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한 문서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된 역사이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하여 1세기 이후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의 중심으로 삼기위해 노력한 흔적을 접하게 된다. 교회 역사는 성경의 시대가 끝난 이후를 담아낸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다. 도리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소화하였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그리

교회 역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로운 것이 발견된다. 하나님의 구원역사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교회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해준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즉 십자가의 복음이 지닌 파위를 접하게 된다.

이 시대의 교회가 표류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함께 교회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를 원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겨진 분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계속)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Denver, Dallas, and Philadelphia.

미주한인이민 112주년

미주한인이민 112주년 기념 및 2015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

The 112th Anniversary of the Korean Immigration to the US and the 12th Celebration of Korean American Day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CCKI:전국총회장 김창원 박사/하와이)를 승계한 미주한인재단은 미주한인사회에서 매우 자랑스런 역사 단체입니다. 매년 1월 13일 미주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은 미주한인재단이 제정에 앞장섰던 사업으로 2004년 1월 12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제정되고 2005년 12월에 미연방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제정 결의안이 통과되어 법제화된 미국의 국가기념일입니다. 2015년은 미주한인이민 112주년의 해이자 제12회 미주한인의 날 기념일로 미주한인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월 6일(화요일)

- 10:30 LA County Board of Supervisor선포식-(예정)
장소: 500 W. Temple St., CA90012

1월 11일(일요일)

- 2015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 감사예배 및 음악 콘서트
- 장소: 월셔연합감리교회
435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일시: 2015년 1월 11일 오후 6:00 pm

1) 기념 감사예배 2) 음악 콘서트
주최: KAF-USA/LA 주관: 한인문화센터

1월 12일(월요일)

- 9:30남가주 월셔 초등학교 현기식 및 차세대 세미나-(예정)
장소: 4900 Wilshire Bl., LA, CA90010
- 11:00 월턴 플레이스 초등학교 현기식 및 차세대 세미나-(예정)
장소: 745 S. Wilton Pl., LA, CA90005
- 12:00캘리포니아 주의회 선포식(Sacramento)-
장소: State Capitol, Sacramento, CA94249

1월 13일(화요일)

- 9:00 굿 사마리탄 병원 현기식
장소: 1225 Wilshire Bl., LA, CA90010
- 10:30 LA 한인회관 기념식 및 양국기 게양식
장소: 981 S. Western Ave., LA, CA90006
주최: KAF-USA/LA 주관: LA한인회
- 17:00 Irvine 시의회 선포식-(예정)
장소: One Civic Center Plaza, Irvine, CA92623
- 17:00 Buena Park 시의회 선포식-(예정)
장소: 6650 Beach Bl., Buena Park, CA90622
- 18:00 Glendale시의회 선포식
장소: 613 Broadway, Glendale, CA91206

1월 14일(수요일)

- 9:45 LA 시의회 선포식
장소: LA 시의회 200 N. Spring St. LA, CA90012

1월 15일(목요일)

- 11:00 미주한인의 날 기념 골프대회(전국대회)
장소: California Country Club골프장:
1509WorkmanMillRd, CityofIndustry, CA90601
(626) 333-4571



미주한인재단

Korean American Foundation of USA

Tax ID: 20-2356362 (501(c)3)

- 공동 대회장: 제임스 안(LA 한인회 회장), 김종현(재미중소기업협회 회장)
- 골프대회준비위원장: 김영조 한인문화센터: 단장 우정자
- 준비위원: Karen 이(USA), 이용남(LA), 김동조(Glendale), 임종혁(Buena Park), 조현포(Sacramento), 김정혜, 정희님, 조지 최, 송규식(Irvine), Jeff 이(LA한인회)

미주한인재단-USA 전국 총회장 김성웅 / 미주한인재단 -USA 명예 전국 총회장 박상원
연락처: 미주한인재단 사무국 Tel. 213-784-2075 Fax 213-381-6234 e-mail: kafusa21@gmail.com

각 지역 회장

정동철(LA, CA), 김동균(Honolulu, HI), 이명숙(Philadelphia), 이근선(Baltimore, MD), 허인욱(Washington DC), 류제봉(Queens, NY), 최영배(Brooklyn, NY), (New York, NY), 백병주(Rochester, NY), 노웅(NJ), 강태복(Ridgefield, NJ), 신성순(Manalapan, NJ), 이금숙(Palisades Park, NJ), 안영대(Orange County), 차만재(Central, CA), 이창원(Las Vegas, NV), 이은자(Atlanta, GA), 이흥복(Vancouver, WA), 신원택(Spokane, WA), 고경호(Federal Way, WA), 패티김(Tacoma, WA), 김동조(Glendale, CA), 윤요한(Anchorage, AK), 박서경(Boise, ID), 이이호(Bozeman, MT), 정일화(Denver, CO), 류기원(Eugene, OR), 한순(Seattle, WA), 김도산(Olympia, WA), 안무실(Portland, OR), 김두남(Albuquerque, NM), 박우서(SF, CA), 조현포(SA, CA), 김경자(Tustin, CA), 송규식(Irvine, CA), (Pasadena, CA), 이명환(Fullerton, CA), 임종혁(Buena, Park), 제임스 로(Victoville, CA), (San Bernardino, CA), 김용만(Houston, TX), 김종갑(Chicago, IL), 신명숙(Detroit, MI), (Huntsville, AL), 이정훈(Fairfax, VA), 박선영(Santa Ana, CA), 김현숙(San Pedro, CA), 김재호(Barstow, CA), 박진영(La Palma)

***미주한인재단 전국 총회장은 전국 정관에 따라 미주한인재단 전국경기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003년 10월 30일 뉴욕에서 개최된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CCKI) 마지막 전국총회에서 미주한인재단 초대 전국 총회장(임기 2004.1.1-2004.12.31)으로 조병태 CCKI-뉴욕 공동회장이 선출되었고, 조병태 전국 총회장은 2004년 1월 13일에 제1회 미주한인의 날 선포식과 기념행사 참석과 더불어 전국총회를 LA에서 개최하였으며, 제2대 미주한인재단 전국 총회장(임기 2005.1.1-2005.12.31)은 2005년 1월 13일 LA에서 개최된 전국경기총회에서 윤병욱 CCKI-LA대표회장이 선출되었고, 제3대 전국 총회장(임기 2006.1.1-2007.12.31)은 연임하였으며, 제4대 전국총회장(임기 2008.1.1-2009.12.31)은 이정수 미주한인재단-Dallas 회장이 Las Vegas 전국 총회에서 선출되었고, 제5대 전국 총회장(임기 2010.1.1-2010.12.31)은 영구제명되었고, 제6대 전국 총회장(임기 2011.1.1-2011.12.31)은 명돈의 미주한인재단-Baltimore, MD회장이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전국 경기총회에서 선출되었으며, 제7대 전국 총회장(임기 2012.1.1-2012.12.31)은 박상원 미주한인재단-Los Angeles회장이 2011년 11월 19일 워싱턴DC 전국 경기총회에서 선출되었고, 제8대 전국 총회장(임기 2013.1.1-2014.12.31)은 2012년 9월 20일 Los Angeles 전국 경기총회에서 선출되어 연임하였으며, 제9대 전국 총회장(임기 2015.1.1-2016.12.31)은 2014년 8월 28일 하와이에서 개최된 전국 경기총회에서 김성웅 미주한인재단-LA 전임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신년축하광고

Happy New Yea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1)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 Tel.(562)691-0691 Fax.(562)691-0698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el. (213)215-8523 Fax.(213)977-1183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Tel. (718)464-2295 Fax.(718)762-4693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40-05 Skilman Ave. Sunnyside, NY 11104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에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7 Jarvis Ave., Syosset, NY 1179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Tel.(718)279-2757,2758 Fax.(718)279-1823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210-10 Horaca Harding Exp Bayside 11364 Tel. (718)639-3021 Fax.(718)507-6376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Tel. (303)422-6950 Fax.(303)422-6943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424 N. Western Ave. L.A., CA 90004 Tel.(323)466-1234 Fax. (323)466-0816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0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2202 Fax(213)381-2535	벤엘교회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충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Tel.(626)339-6177 Fax.(626)967-3078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3521 Lomita Bl. #200 Torrance CA 90505 Tel.(310)749-0577	남가주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501 S. Idaho St, #200 La Habra CA 90631 Tel. (714)524-8800 Fax.(562)690-8044	샤롯데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Tel.(704)529-0900 Fax.(704)529-0998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
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1300S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el. (818)952-2449	시애틀평양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Tel.(347)753-4551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Tel.(718)570-585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Tel. (915)755-1490 Fax.(915)751-4365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672-1150 Fax.(718)672-1151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927-0630 Fax.(215)927-0643	풍성한교회 담임목사: 박호우 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8 Tel. (213)381-9490 Fax.(213)385-9191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Tel.(860)643-4738 Fax.(860)647-0565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Tel. (516)277-1103 Cell.(917)922-0500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

